

## 21세기 바른건축문화를 주도하는 대원

1972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1만 500여가구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등 국가산업 및 주택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대원건설.

대원건설은 모기업인 대원모방에서 쌓아올린 신용을 바탕으로 건설업에 진출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다. 튼튼하고 안락한 주택건설업체로서 명성을 쌓으며, 30여년간 눈부신 활약을 펼친 대원건설을 찾아가 대원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았다.

〈취재 | 박병기 기자〉



천안불당지구 대원컨타빌아파트

## 인간을 위한 최고의 아파트

전국에서 아파트세대를 이끌었던 대원의 고급아파트 브랜드인 '칸타빌'.

칸타빌은 '노래하듯이' 라는 뜻의 칸타빌레라는 이탈리아의 줄인말로 노래가 절로 나올 만한 행복한 집이라는 의미로 대원의 철학이 담긴 브랜드네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칸타빌'은 너른마당, 그린필드, 조깅트랙과 산책로 등으로 깨끗한 자연과 테마공원을 제공하고 단지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LAN환경을 구축, 단지내 상가 주문배달서비스는 물론, 이웃간의 대화공간, 단지내 사이버장터 등 모든 정보의 공유 및 제공이 가능토록 하여 '인간을 위한 최고의 아파트'를 내세우는 '대원정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한 시공을 이루고자 고객서비스 조직 강화, 입주자 사전점검제의 철저 시행, 한국형 아파트 평면개발, 원가 절감을 위한 신공법개발 촉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주택자재 전시회에 직원 파견 견학 등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과 함께, 고객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임직원과 주부들을 통한 모델 하우스 품질 사전 점검을 적극 시행하여 고객만족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에 들인 대원의 노력에선 장인정신이 엿보인다. 품질보증제 시행, ISO 9002 인증, 전사적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등을 통해 주택품질 향상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용마산 대원칸타빌아파트

또한 대원은 '지진이 일어나도 끄덕 없는 주택을 짓는다'는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시공현장을 챙겼으며 입주자 사전점검제 철저 시행, 한국적 아파트평면개발, 원가절감을 위한 신공법 개발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 은탑산업훈장 수상

대원건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국가의 서민주택 보급 정책에 적극 부응해 수도권의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4대 신도시와 수원 권선지구, 부산 해운대지구, 대전 송촌지구, 서울 등지에 지은 총 1만 500여가구중 82%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 서민의 내집마련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에서 부도로 공사 중단된 현장의 승계시공으로 '서민의 내집마련 꿈' 실현과 국가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을 평가받아 지난 4월말 '주택건설의날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

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 안전성장'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한 노력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마음으로부터의 사회환원

대원은 지난 30여년간 충북을 대표하는 중견주택 건설업체로서 국가 및 지방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역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위에 귀감에 되었다.

또한 전영우 대표이사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

기 운동 및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청주지역협의회 등에 기금을 기부해 왔고 수재의연금 등 각종 성금도 쾌척하고 아울러 전국체전,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등 지역사회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환원의 원칙을 원칙으로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사회환원을 실천했다.

“인간사랑과 환경 그리고 21세기 신건축 미학을 경영의 지표로 삼고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전영우 대표이사.

그의 말처럼 모든 대원맨들이 노력하여 외형만 키우는 기업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며 언제나 고객중심의 경영을 지향하는 21세기 바른건축문화를 주도해가며 초우량 건설회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용인 동천지구 대원리 아파트